

# 사설

## 실직자 재화에 나서자

실업의 고통 속에 놓여있는 이웃, 그 사람의 무능과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업보를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나의 고통을 대신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대중의 고통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불교계의 시의적절한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이 한층 더 요구되는 때이다.

교계에서는 '보현의 집'(4월 22일),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5월 20일), '아침을 여는 사람들(5월 25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6월 1일) 등을 이미 개원해 실업자들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서울 수송동과 부산에서도 제 2, 제 3의 '보현의 집' 개원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또 어떤 집에서는 큰 방학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는 듯한 양상도 없지 않다.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가 실업자 문제에 대하여 지녀야 할 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업자는 우리의 공업에 의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에 대한 최우선 단순한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을 자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을 비하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는 것이 된다.

불교계는 공업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천명하고, 정책 차원에서 실업자의 구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그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엄하게 지켜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교계도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자세로, 실업자 구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처님이 제시하신 청정한 공동체인

교단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짐을 사부대중이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 대중들이 심시일반의 자세로 힘을 모아, 청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사할 공동체에서 갖가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미와 북미에서는 자선단체 등에 봉사의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 3부문에 의한 실업자 구제가 전체 실업자 구제의 10%선에 육박하고 있다. 하, 그 가운데 종교단체가 큰 비율을 점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실업자 문제에서부터 진정한 불국토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신적 구원의 차원에서 실업자에 대한 구제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실업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남과 사회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수렁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구제를 바탕으로 하되, 그들이 실업의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사찰의 신도 교육을 통해 실업사태의 본질을 명확히 보도록 하여, 실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도록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업자들이 당당하게 재충전을 위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교의 사회화, 나아가 불국토 건설의 사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에 교계와 천만 불자의 인식이 함께 해야 한다.

# “고통분담 대화합”

### 6대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국민주도 개혁' 등 제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6개 종교지도자들이 “술선수법하는 고통분담 대화합으로 국난을 극복하자”는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종교지도자들은 “갑작스런 국가 부도 위기 앞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극복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개혁의 명분만 치장할뿐 실제로는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세력들이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여 국난을 타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들로인해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불신을 가중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지도자들은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의 마스터플랜 제시 △공정한 고통분담 △사회지도층과 가진자들의 모범 △타협과 양보에 기초한 사회적 대화합의 도출 등의 4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들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국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리당락과 부처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큰 정치 개혁된 정치를 살려라”고 당부했다.

또 재벌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안정을 촉구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합의 장에 나와 국민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대국민 호소문은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추기경, 강원 통목사, 조경근 원불교교정원장, 최근덕 성공관장, 김광욱 천도교교령, 김봉은 KCRP회장 등 7명의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총무원 전산화 정통부장관상 수상

조계종총무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산화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총무원은 중앙총무기관 1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중앙과 지역 본말사를 연결하는 제2차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무원은 8일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았다.

# ‘실업극복 국민운동’ 발족

### 15일경...종교-노동-여성-언론계 등 동참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와 사회단체, 노동계, 경영계, 학계, 여성계, 언론계 대표들로 구성된 (가칭) ‘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15일경 발족된다.

‘실업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은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MBC, 한국담배인삼공사,

은행·증권사 등 여러 단체에서 모은 실업극복의 사용방식과 금액 등을 결정하는 민간위원회, 이 위원회는 실업극복을 위한 ‘복지진흥기금’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으며, 당초 노동부의 “모아진 실업극복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이 모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추진위원회, 사회부장 능관스님이 집행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선출 및 운영규정 확정, 사무국 공간 확보와 일정 등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다.

## 불국사 성타스님 마곡사 진허스님

### 산중총회서 후임주지 추천자 선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후임주지 추천자로 성타스님(조계종포교원장)이 추대되고 제6교구본사 마곡사 후임주지 추천자로 진허스님(조계종 기초선원장)이 선출됐다.

불국사는 5일 오후 2시 심검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성타스님의 후임에 성타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52년 불국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5선), 총무원 교무부장등을 역임한 성타스님은 “문도들의 뜻에 따라 본말사의 중무행정의 효율화와 문도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1일 마곡사는 후임



◇성타스님



◇진허스님

주지 추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기초선원장 진허스님과 전 마곡사주지 능업스님이 사에서 월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5선), 총무원 교무부장등을 역임한 성타스님은 “문도들의 뜻에 따라 본말사의 중무행정의 효율화와 문도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말사간의 원활한 중무운영을 꾀하며 제6교구 발전기회를 구성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 쌍계사 28일 산중총회 후임주지 추대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산중총회가 28일 오후 2시 쌍계사에서 열린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지난달 22일자로 사직사기 수리된 철형스님의 후임주지 추천자를 추대한다. 쌍계사의 한 스님은 “이번 산중총회에서는 후임주지 추천자를 경선이 아닌 추대로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선출될 주지스님은 지방중정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지 철형스님의 잔여임기(2000년 1월8일까지)와 관계없이 4년임기로 주지직을 수행하게 된다.



◇불교·천주교 등 6개 종교지도자들이 9일 국민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 수행환경 보호노력 ‘긍정적’

### 불교계 ‘국민정부 100일’ 평가

4일로 출범 1백일을 맞은 국민정부에 대한 불교계의 평가는 “좀 더 지켜본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김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확인된 기간이었다”고 지난 1백일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개편으로 불교계와의 협조적 관계모색과 공원내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 의지를 표현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입장표명 등 현안들을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재원스님은 “1백일을 지난 시점에서 현정부에 대한 중단적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그러나 종단은 6개월, 1년 등 좀더 긴 시간을 지켜보며 대불교계 공약이행의 여부와 종교원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정부 출범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4월 11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중 대통령과 “금모으기 운동” 등과 관련 국민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4월2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를 행사장에서도 서너차례 회동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우리는 지금 모 든 면에서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고 “아직까지 개혁의 뚜렷한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정개편 움직임과 관련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나 강압에 의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순리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뚜렷한 의사표현을 자제하면서 “좀 더 지켜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연태 기자

## “관광가이드 연수 또 열어주세요”

### 조계종 연수참가자 설문

지난 5월 28~29일 불국사 일대에서 열렸던 관광가이드 연수 참가자들이 이같은 연수회를 또 열어줄 것을 요청 조계종포교원이 행한 고민에 빠졌다.

포교원은 하반기중 2차 연수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불교문화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새벽에 불과 저녁에 불

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외국인 안내시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연수회에도 꼭 참석하겠다(75%), 참가자 전원이 동료들에게 연수 참가를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찰에서의 숙식과 조식에 불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불교문화와 불교적 삶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연수 참가자는 국제포교사 8명을 포함해 모두 55명. 대부분 경력 5년 이상으로, 연이 일보이 중국어 가운데 하나씩은 능통한 중견 가이드들이었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 현대만평



기자사칭에 속지 마시다

737-8881

# 身士不二的 企業 (株)興國農産

○ 신·토·불·이·정·신 ○ 토종무염·호두기름·토종홍화씨



## 함양산 토종 홍화씨가 왜 좋은가?

청정지역인 지리산 지역 함양은 홍화씨 재배의 적지이며, 농촌지도소, 약초시험장 등을 중심으로 재배농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우수한 품질의 홍화씨가 생산되어 소비자에게서 그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수입산도 넘쳐나고 수입산으로 한해 농사를 지어 토종이라 감싸서 판매하는 일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지역에서나 심었다고 모두 토종은 아닙니다. 몇해에 걸쳐 같은 토양과 토질의 땅에서 수확한 같은 씨앗으로 유행을 부려 싹고 가본 함양산 홍화씨는 한알의 씨앗에도 농민의 땅과 정성이 듬뿍 배어있는 토종 품종 홍화씨입니다.

소비자가격 200g 씨앗 33,000원/250g 가루 43,000원

## 함양토산물 - 토종 홍화씨

곳에서 정교 장려하여 수확하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함양산 토종 홍화씨보사부의 식품 원료사용 허가, 때를 맞추어 심고수확한 토종 홍화씨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안심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함양군수 裨 務 所

# 배에 좋은 함양산 토종 홍화

무엇 600g = 소비자가 45,000원

호두기름 100ml = 소비자가 27,000원

‘무 하나 잘 먹으면 인삼 한뿌리 먹는 것 보다 낫다’고 알려진 만큼 무는 식용으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에는 포도당, 스크로브등과 같은 당분과 함께 신맛을 가래내 주는 산, 비타민류, C, 그밖에 섬유유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는 소화, 진해, 거담 작용을 하는 성분 이 있고 가래, 기침, 해소치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무는 해독작용이 현저하여 체내의 독성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으며, 폐질환으로 인한 각혈, 코피등과 두통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무에는 재래식 가마솥에 생강, 마늘을 깔고 무를 썰어 얹은 다음 약재를 넣고 찹쌀과 엿갈음으로 삭혀 3일을 고아 정성껏 만든 옛날 식품입니다.



호두는 만성기침에 효과가 있는 폐, 기관지질환의 약재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호두는 신장기능이 허약하고 천식해소를 하는 환자에게 좋고 혈액순환이 잘되며 보혈작용, 눈이 맑아지며 피부는 윤택하게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호두기름은 토종호두살을 큰술에 밥을 지어 뜸이 들 즈음에 집어넣어 2회를 띠고 말려서 살짝 볶은 은행과 살구씨를 혼합하여 기름을 낸 것입니다. 호두기름은 교사나 가수등의 성대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주문처 (무료전화) 전 국 (080)064-1300 서 울 (080)070-1300 광주 전남북 (080)085-1300 대구 경북 (080)040-1300 제 주 (080)090-1300

건강한 農民의 郷土企業 (株) 흥국농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19 전화 : (0597)64-1300 FAX : (0597)64-1304

◎ 사찰내 불교용품 판매점, 매점등에 전시판매하실분은 연락하세요.